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0 주차 (13:1~20)

(2015년 8월 16일 - 2015년 8월 22일)

(제 3 권 30 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8 월 1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체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주일)

오늘의 본문 (요 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나니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원문 해석하기

- (1절) 유월절 축제 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Πρὸ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τοῦ πάσχα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아버지께 향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ἵνα μεταβῆ ἔ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2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καὶ δείπνου γινομένου.) [즉, 대적자가 이미 그 마음에 넣은 후 (τοῦ διαβόλου ἡδὴ βεβληκότος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가롯 시몬 [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ἵνα παραδοῖ αὐτὸν Ἰούδας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3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εἰδὼς ὅτι πάντα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πατήρ εἰ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ν καὶ πρὸς τὸν θεὸν ὑπάγει.)
- (4절) 그는 만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ἐγείρεται ἐκ τοῦ δείπνου) 그리고 겹옷을 곁에 두셨다 (καὶ τίθησι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수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들렀습니다 (καὶ λαβὼν λέντιον διέζωσεν ἑαυτόν.)
- (5절) 그런 후 물을 물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εἶτα βάλλει ὕδωρ εἰς τὸν νιπτήρα)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καὶ ἤρξατο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μαθητῶν)

-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καὶ ἐκμίωσεν τῷ λεντίῳ ᾧ ἦν διεζωσμένος)
- (6절)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가 그[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ύ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ὁ ἐγὼ ποιῶ σὺ οὐκ οἶδας ἄρτι)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γνώση δὲ μετὰ ταῦτα)
-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έτρος)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οὐ μὴ νίψη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αὐτῷ)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εἰ μὴ νίψω σε)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
- (9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κύριε, μὴ τοὺς πόδας 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κεφαλὴν)
-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목욕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제외하고는
 (ὁ λουόμενος οὐκ ἔχει χρεῖαν 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νίψασθαι)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ἀλλ' ἔστιν καθαρὸς ὅλος)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καὶ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ε, ἀλλ' οὐχὶ πάντες)
-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 줄 자를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τὸν παραδιδόντα αὐτόν)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εν ὅτι οὐχὶ πάντες καθαροὶ ἐ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 절을 읽으십시오. 13 장 1 절은 13 장 전체의 요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3 장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지요. 이 1 절은 특별히 문법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1 절에 쓰인 주동사는 단 한 개로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랑하셨습니다’ (ἠγάπησεν, 에가페센)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εἰδὼς 에이도스)’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아가페사스)’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저자인 요한이 정작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완전하게) 사랑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야 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적어도 두 번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3년 넘게 유지해 온 예수 공동체의 일원 중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긴 이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찢어나 달라고 품에 안겨 보려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아픈 광경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때가 되었기에 그들의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 열 둘을 선택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들 중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어떤 이는 예수님이 그토록 치욕스럽게 유대인들에게 맞고 심문 당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외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마침내는 철저히 홀로 남아 그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그날이 바로 눈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 지실까요?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곧 벌어질 것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1 절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흔히들 말하는 사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이 철저히 배신당하고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또한 그들을 향한 가장 숭고하고도 가슴 절절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살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었고 그들은 3년여의 공생애 기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Commented [JL1]: 령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일이 이제 곧 그들 앞에 실제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다. 그들 앞에서 계신 예수님은 왕이고 강한 존재였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만한 자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그때까지 그들이 가진 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도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인생역전의 꿈을 마음 속에 숨긴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못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곁을 떠나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런 인간들이기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은 그 누구라도 아무런 조건없이 사랑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거나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또는 열심히 훈련받아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실패하여 힘들고 낙담해 있거나 어떤 부끄러운 일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골방에 숨어 있을지라도, 또는 너무도 가난하여 쥐꼬리만한 헌금조차 드릴 형편이 못 돼 늘 자신의 빈 손을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바빠 정신없이 사느라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이 보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끝까지’(εἰς τέλος, 에이스 텔로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완전하게’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고독, 절대 고통, 철저한 버려짐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제자들도 그를 외면했으며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마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발거벗겨진 수치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조차 그 손을 놓아 버린 절대 고독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는 단지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이 완성하신 우리를 향한 절대적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대적자는 누구인가? (월요일)

오늘의 본문(요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나니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유월절 축제 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Πρὸ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τοῦ πάσχα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아버지께 향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ἵνα μεταβῆ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2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καὶ δείπνου γινομένου.) [즉], 대적자가 이미 그 마음에 넣은 후 (τοῦ διαβόλου ἤδη βεβληκότος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가롯 시몬 [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ἵνα παραδοῖ αὐτὸν Ἰούδας Σι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3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εἰδὼς ὅτι πάντα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πατὴρ εἰ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ν καὶ πρὸς τὸν θεὸν ὑπάγει.)
- (4절) 그는 만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ἐγείρεται ἐκ τοῦ δείπνου) 그리고 겹옷을 곁에 두셨다 (καὶ τίθησι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수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들렀습니다 (καὶ λαβὼν λέντιον διέζωσεν ἑαυτὸν.)
- (5절) 그런 후 물을 물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εἶτα βάλλει ὕδωρ εἰς τὸν νιπτήρα.)

-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καὶ ἤρξατο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μαθητῶν)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καὶ ἐκμάσσειν τῷ λεντίῳ ᾧ ἦν διεζωσμένος)
- (6절)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가 그[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ὺ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ὁ ἐγὼ ποιῶ σὺ οὐκ οἶδας ἄρτι·)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γνώση δὲ μετὰ ταῦτα·)
-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έτρος·)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οὐ μὴ νίψῃ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αὐτῷ·)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εἰ μὴ νίψω σε·)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
- (9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κύριε, μὴ τοὺς πόδας 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κεφαλὴν·)
-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목욕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제외하고는
 (ὁ λουόμενος οὐκ ἔχει χρεῖαν 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νίψασθαι·)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ἀλλ' ἔστιν καθαρὸς ὅλος·)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καὶ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ἀλλ' οὐχὶ πάντες·)
-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 줄 자를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τὸν παραδιδόντα αὐτόν·)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εν ὅτι οὐχὶ πάντες καθαροὶ ἐστέ·)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 절을 읽으십시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갑자기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겹옷을 벗고 수건을 받아 자신의 몸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소위 ‘세족식’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 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앞에 요한은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 ‘카이’(καὶ)를 사용하여 앞의 내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시려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2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 절은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3 절 첫 부분에 “저녁 먹는 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3 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의 이야기는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가롯 유다 이야기를 이 부분에다 삽입하였을까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뒷부분에 나오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에 한꺼번에 기록하지 않고 일부러 이 부분에다 삽입한 이유에 대해 신학자 D.A. Carson 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러티브를 진행하기 전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질을 이 에피소드가 얼마나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그의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확신시키고자 했다. 발을 씻기울 제자들 가운데에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기만적인 음모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Carson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유다의 사악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 줄 생각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모두 하시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적자가 이미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그 마음에 넣은 후”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많은 주석가들은 대적자를 사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인간들이 아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한 셈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다는 매우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탄에 의해 조종 당했고, 그렇게 자신이 믿고 따르던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은 유다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한 꼴이 되 버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블로’ (δίαβολος)에 대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악마’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게는 중상 모략하는 자, 비난하는 자,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여 중상 모략하고 법정에서 세워 죽이려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탄은 유다의 마음 속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곧장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적자는 예수님의 빵 조각을 받은 후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그 사단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지도자들과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대적자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려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들에게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넘긴 사람도 다름아닌 3년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을 목격하고 그 가르침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즈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 온 것도, 신자유주의의 열풍으로 변영 신학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됨으로 인해 생겨난 지엽적이고 파생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진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죄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삶을 통해 구현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 성경의 진리를 맘대로 왜곡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결에 보이는 인간들을 더 의식하는 기독교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진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종교적 형식만 남아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넘기는 일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 그 진리 안에 머물며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찌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유월절 축제 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Πρὸ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τοῦ πάσχα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아버지께 향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ἵνα μεταβῆῖ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2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καὶ δεῖπνου γινομένου)
[즉], 대적자가 이미 그 마음에 넣은 후 (τοῦ διαβόλου ἤδη βεβληκότος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가룟 시몬 [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ἵνα παραδοῖ αὐτὸν Ἰούδας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3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εἰδὼς ὅτι πάντα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πατὴρ εἰ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ν καὶ πρὸς τὸν θεὸν ὑπάγει)
- (4절) 그는 만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ἐγείρεται ἐκ τοῦ δεῖπνου)
그리고 겹옷을 곁에 두셨다 (καὶ τίθησι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수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들렀습니다 (καὶ λαβὼν λέντιον διέζωσεν ἑαυτὸν)
- (5절) 그런 후 물을 물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εἶτα βάλει ὕδωρ εἰς τὸν νιπτήρα)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καὶ ἤρξατο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μαθητῶν)

-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καὶ ἐκμίωσεν τῷ λεντίῳ ᾧ ἦν διεζωσμένος)
- (6절)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가 그[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ὺ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ὁ ἐγὼ ποιῶ σὺ οὐκ οἶδας ἄρα)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γνώση δὲ μετὰ ταῦτα)
-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έτρος)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οὐ μὴ νίψη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αὐτῷ)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εἰ μὴ νίψω σε)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
- (9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κύριε, μὴ τοὺς πόδας 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κεφαλὴν)
-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목욕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제외하고는
 (ὁ λελουμένος οὐκ ἔχει χρεῖαν 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νίψασθαι)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ἀλλ' ἔστιν καθαρὸς ὅλος)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καὶ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ἀλλ' οὐχὶ πάντες)
-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 줄 자를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τὸν παραδιδόντα αὐτόν)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εν ὅτι οὐχὶ πάντες καθαροὶ ἐστέ.)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일어난 이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시점을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점은 ‘대적자가 가롯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 주도록 한 후’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웠듯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할 조건이 되는 ‘그때’라는 것은 결국 ‘배반’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이땅에서 사명을 다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들이 풀지 못한 숙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처럼 똑같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모든 인간들과는 달리 그 죽음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의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래야 그분의 죽음이 믿는 자들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때가 눈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찬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토대 위에서 이 사역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를 순서대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장 으로부터 일어나셔서 겹옷을 [벗어]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는 수건을 받아 두르시고는 물을 그릇에 붓 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사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적극 만류하기 전까지 다른 제자 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거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이 에피 소드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의견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겸손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앞 으로 십자가를 친히 지고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며 죽음에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 정도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의 질문에 대해 너무 뻔하고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 장에는 예수님 외에 주요 인물 두 명이 더 등장합니다. 한명은 곧 예수님을 배반해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줄 가룟유다이고, 다른 한명은 나중에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를 부인 할 베드로입니다. 13 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만찬에서 유다에게 빵조각을 찢어서 주는 사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 모두 이후에 두 제자에게 일어날 일 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씻기를 거부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 세했던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직접 받았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 을 팔아 넘기는 일을 저지르지요. 유월절 전날 밤 벌어지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한번 묵 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6 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 를 향하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 이 물그릇을 옮겨가며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 셔서 그의 발을 씻으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구 만류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ύ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이 말은 단순한 질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이렇게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형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진행형으로 해석하 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므로 베드로의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하면 “주님 당신이 지금 저의 발을 씻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과는 달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실패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대 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베드로와는 달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 모인 열두 제자 모두 결국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모두 도망가서 숨거나 부인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납작 꿇어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단 하나라도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침내 더럽고 냄새가 풀풀 나는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씻겨달라며 어쩔 수 없이 내어 놓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여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절절히 깨닫게 되고 면목없이 그분의 의를 힘입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지요.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의를 모두 내려 놓았나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왔고 좀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행했기에 그분께 인정받는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그리고 염치없지만 더러워진 자신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셨나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진정한 용서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유월절 축제 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Πρὸ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τοῦ πάσχα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아버지께 향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ἵνα μεταβῆ ἔ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2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καὶ δείπνου γινομένου) [즉], 대적자가 이미 그 마음에 넣은 후 (τοῦ διαβόλου ἤδη βεβληκότος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가롯 시몬 [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ἵνα παραδοῖ αὐτὸν Ἰούδας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3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εἰδὼς ὅτι πάντα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πατήρ εἰ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ν καὶ πρὸς τὸν θεὸν ὑπάγει)
- (4절) 그는 만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ἐγείρεται ἐκ τοῦ δείπνου) 그리고 겹옷을 곁에 두셨다 (καὶ τίθησι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수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들렀습니다 (καὶ λαβὼν λέντιον διέζωσεν ἑαυτόν)
- (5절) 그런 후 물을 물그릇에 부으셨습니다 (εἶτα βάλει ὕδωρ εἰς τὸν νιπτήρα)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καὶ ἤρξατο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μαθητῶν)

-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καὶ ἐκμίωσεν τῷ λεντίῳ ᾧ ἦν διεζωσμένος)
- (6절)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가 그[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ὺ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ὁ ἐγὼ ποιῶ σὺ οὐκ οἶδας ἄρτι)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γνώση δὲ μετὰ ταῦτα)
-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έτρος)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οὐ μὴ νίψῃ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αὐτῷ)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εἰ μὴ νίψω σε)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
- (9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κύριε, μὴ τοὺς πόδας 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κεφαλὴν.)
-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목욕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제외하고는
 (ὁ λουόμενος οὐκ ἔχει χρεῖαν 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νίψασθαι)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ἀλλ' ἔστιν καθαρὸς ὅλος)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καὶ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ἀλλ' οὐχὶ πάντες)
-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 줄 자를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τὸν παραδιδόντα αὐτόν)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εν ὅτι οὐχὶ πάντες καθαροὶ ἐστέ.)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6-7 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적어도 겸손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조차 모를 정도의 바보는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에피소드에서 단순한 겸손 이상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정작 제자들은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머리 속은 너무 복잡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언제 이 일의 의미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를 담대히 전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때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¹¹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¹²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¹³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¹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0-14).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 용서’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인 것이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은 죄 문제를 우리더러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더 많은 선한 행동을 해야한다거나, 더 많은 헌금을 내서 자기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이 뭔가를 해서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쪽에서 씻어 주는 것입니다. 그 죄씻김의 의미가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내민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심으로써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소위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며,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도 행합니다. 그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평소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한 아내의 발을 씻기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식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한을 풀어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제자

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갚을 빛도 없었지요. 오히려 제자들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빛을 지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33절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마18:15~20)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마 18:21).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일만 달란트 빚진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의미는 단순히 있었던 일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용서 받는 자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용서하는 자가 대신 희생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빛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희생을 치러서 그 빛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탕감해 주기 위해 당신이 뭔가를 희생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꺼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진정한 용서가 없는 사랑은 공허한 것이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의 죄를 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서해주는 경험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유월절 축제 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Πρὸ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τοῦ πάσχα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아버지께 향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ἵνα μεταβῆ ἔ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2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καὶ δείπνου γινομένου) [즉], 대적자가 이미 그 마음에 넣은 후 (τοῦ διαβόλου ἤδη βεβληκότος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가룟 시몬 [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ἵνα παραδοῖ αὐτὸν Ἰούδας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3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εἰδὼς ὅτι πάντα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πατήρ εἰ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ν καὶ πρὸς τὸν θεὸν ὑπάγει)
- (4절) 그는 만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ἐγείρεται ἐκ τοῦ δείπνου) 그리고 겹옷을 곁에 두셨다 (καὶ τίθησι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수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들렀습니다 (καὶ λαβὼν λέντιον διέζωσεν ἑαυτὸν)
- (5절) 그런 후 물을 물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εἶτα βάλει ὕδωρ εἰς τὸν νιπτήρα)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καὶ ἤρξατο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μαθητῶν)

-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καὶ ἐκμίωσεν τῷ λεντίῳ ᾧ ἦν διεζωσμένος)
- (6절)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가 그[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ὺ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ὁ ἐγὼ ποιῶ σὺ οὐκ οἶδας ἄρτι)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γνώση δὲ μετὰ ταῦτα)
-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έτρος)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οὐ μὴ νίψη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αὐτῷ)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εἰ μὴ νίψω σε)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
- (9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κύριε, μὴ τοὺς πόδας 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κεφαλὴν.)
-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목욕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제외하고는
 (ὁ λελουμένος οὐκ ἔχει χρεῖαν 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νίψασθαι)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ἀλλ' ἔστιν καθαρὸς ὅλος)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καὶ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ε, ἀλλ' οὐχὶ πάντες)
-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 줄 자를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τὸν παραδιδόντα αὐτόν)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εν ὅτι οὐχὶ πάντες καθαροὶ ἐ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말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불리 베드로의 무지몽매함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의미도 모른 채 아무생각없이 발을 맡긴 다른 제자들이 더 이해하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들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모르기는 매 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거부했는지 여기에 쓰인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οὐ μὴ νίψη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오우 메 니페스 모우 투우스 포다스 에이스 톤 아히오나)라고 말합니다. 앞에 이중부정 (οὐ μὴ, 오우 메)과 함께 가정법 (subjunctive mood)이 쓰였는데, 이는 아주 강한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화법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해석하면, “당신이 아무리 나의 발을 씻고자 애를 써도, 당신은 절대로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왜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요. (마 16:21~24 참조) 사실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던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 16:23).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베드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은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난과 죽음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겉옷을 벗어 두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 그릇을 들고 자신 앞에 앉으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여느 때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와 어떠한 것도 나눈 것이 없다’, ‘공통의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통해야만 비로소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여러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발을 직접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러워진 것을 스스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되어 당당하게 서라는 것이지요. 요즈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모두 지켜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은 모두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물어지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이 보기에 자신이 행위가 성경의 율법이 요구하는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이 매우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을 등지고 사막의 동굴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에센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보기에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룩과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과 의를 옷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 없이 있게 되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 그의 거룩함으로 옷입었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유월절 축제 전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Πρὸ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τοῦ πάσχα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그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아버지께 향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ἵνα μεταβῆ ἔ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2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καὶ δείπνου γινομένου)
 [즉], 대적자가 이미 그 마음에 넣은 후 (τοῦ διαβόλου ἤδη βεβληκότος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가룟 시몬 [의 아들] 유다가 그를 넘겨 주도록 (ἵνα παραδοῖ αὐτὸν Ἰούδας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3절) 아버지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εἰδὼς ὅτι πάντα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πατήρ εἰ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ν καὶ πρὸς τὸν θεὸν ὑπάγει)
- (4절) 그는 만찬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ἐγείρεται ἐκ τοῦ δείπνου)
 그리고 겹옷을 곁에 두셨다 (καὶ τίθησι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수건을 받으신 후 자신에게 들렀습니다 (καὶ λαβὼν λέντιον διέζωσεν ἑαυτὸν)
- (5절) 그런 후 물을 물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εἶτα βάλει ὕδωρ εἰς τὸν νιπτήρα)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καὶ ἤρξατο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μαθητῶν)

-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καὶ ἐκμίωσεν τῷ λεντίῳ ᾧ ἦν διεζωσμένος)
- (6절)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가 그[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κύριε, σὺ μου νίπτεις τοὺς πόδας·)
-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ὁ ἐγὼ ποιῶ σὺ οὐκ οἶδας ἄρα·)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γνώση δὲ μετὰ ταῦτα·)
-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έτρος·)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οὐ μὴ νίψης μου τοὺς πόδα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αὐτῷ·)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εἰ μὴ νίψω σε·)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
- (9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κύριε, μὴ τοὺς πόδας μου μόνον ἀλλὰ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κεφαλὴν·)
-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목욕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제외하고는
 (ὁ λελουμένος οὐκ ἔχει χρεῖαν 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νίψασθαι·)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ἀλλ' ἔστιν καθαρὸς ὅλος·)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καὶ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θε, ἀλλ' οὐχὶ πάντες·)
-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 줄 자를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τὸν παραδιδόντα αὐτόν·)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εν ὅτι οὐχὶ πάντες καθαροὶ ἐσθ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착각은 계속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하려면 발뿐만 아니라 밖으로 노출된 모든 부분, 즉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말한 것이지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며 가끔씩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매우 어리석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물이 실제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읽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구절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주의깊게 살피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나 이유와 결과 등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묵상없이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완치해 주실 거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그렇게 하신다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암이 저절로 치료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대부분 현대 의학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치료 방법이니깐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맹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문자주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는 맹목적 신앙을 초래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경계해야 할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그릇 해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헬라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목욕된 사람은 발을 제외하고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언뜻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목욕된 사람’에서 ‘목욕하다’라는 단어와 ‘씻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목욕된 사람(ὀλουμένος)이라는 구절에는 동사 ‘로우오(λούω)’의 과거분사 형용사형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몸 전체를 물에 담궈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씻다’라는 의미의 동사 ‘뉘토(νίπτω)’는 종교적 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발을 제외하고는’(εἰ μὴ τοὺς πόδας, 에이 메 토우스 포다스)이라는 구절입니다. ‘발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발은 더럽고 몸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따라서 발만 씻으면 이제 온몸이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이 땅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늘 씻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인간이 매일 자기가 지은 죄를 씻는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그들을 깨끗게 하는 행위를 정결이나 거룩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오역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교적으로 깨끗게 하는 정결 의식이나 겸손의 모습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런 의식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0 절 후반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 마지막에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외가 된 사람은 가롯유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롯유다만 목욕을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그의 발만 빼놓고 씻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결국 가롯유다의 운명을 놓고 해석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의롭고 정결한 상태는 인간이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제외하고 목욕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이라는 걸 의미하며 예수님이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친절하게 예수님이 왜 전부가 깨끗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자임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시제를 영어의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pluperfect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만난 시점부터(어쩌면 태초부터) 시작하여 그를 열두 제자 중 하나로 택할 때, 그를 데리고 3년여의 공생애 기간을 보낼 때도 이미 예수님은 그의 역할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시제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은 요한이 이 사건을 회상하며 기록할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훨씬 전인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에서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롯유다의 발을 씻기고 만찬장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가롯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어떤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요한복음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자들’ 중에 속하지 않은 자였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야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자기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철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은 믿음의 주체가 인간일 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요즈음 기독교가 욕을 얻어 먹는다고 교회를 떠나 타 종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신론자로 돌아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기반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 기반한 때문인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12~20)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의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기대어 앉으신 후에
(Ὅτε οὖν ἔν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αὐτῶν [καὶ] ἔλαβεν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καὶ ἀνέπεσεν πάλι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느냐? (γινώσκετε τί πεποίηκα ὑμῖν?)
- (13절) 너희들은 나를 [다음과 같이] 부른다 (ὁμοίως φωνεῖτέ με)
선생님 그리고 주님... 너희들이 제대로 부르고 있다 (ὁ διδάσκαλος καὶ ὁ κύριος καὶ καλῶς λέγετε)
왜냐하면 내가 그이기 때문이다 (εἰμὶ γάρ.)
- (14절) 그런데 만약 나 [곧]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εἰ οὖν ἐγὼ ἔνιψα ὑμῶν τοὺς πόδας ὁ κύριος καὶ ὁ διδάσκαλος)
너희 서로서로가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καὶ ὑμεῖς ὀφείλετε ἀλλήλων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 (15절) 왜냐하면 본보기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ὑπόδειγμα γάρ ἔδοκα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도록 (ἵνα καθὼς ἐγὼ ἐποίησα ὑμῖν καὶ ὑμεῖς ποιῆτε.)
- (1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또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οὐδὲ ἀπόστολος μείζων τοῦ πέμψαντος αὐτόν.)
- (17절) 만약 너희가 이같은 것들을 안다면 (εἰ ταῦτα οἴδατε)
너의는 복된 자들이다 (μακάριοί ἐστε)

- 만약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ἐάν ποιῆτε αὐτά.)
- (18절) 나는 너희들 중 모두에게 해당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다 (Οὐ περί πάντων ὑμῶν λέγω.)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알고 있다 (ἐγὼ οἶδα τίνας ἐξελέξαμην.)
 그러나 기록된 것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ἡ γραφή πληρωθῇ.)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에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ὁ τρίγων μου τὸν ἄρτον ἐπῆρεν ἐπ' ἐμέ τὴν πτέρναν αὐτοῦ.)
- (19절) 지금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ἀπ' ἄρτι λέγω ὑμῖν πρὸ τοῦ γενέσθαι.)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ἵνα πιστεύσητε ὅταν γένηται ὅτι ἐγὼ εἰμι.)
-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ὁ λαμβάνων ἄν τινα πέμψω ἐμέ λαμβάνει.)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ὁ δὲ ἐμέ λαμβάνων λαμβάνει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 절을 읽으십시오.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기대어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적어도 요한은 누구의 대답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완성된 속죄적 의미의 깨끗함을 뜻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허물을 씻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는 정결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미치는 효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¹⁰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¹¹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¹²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¹³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¹⁴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0-14).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히 10:10),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4)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와는 무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12 절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고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너희가 깨닫느냐?”라는 질문인 동시에 앞으로 성령님이 오신 후 제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성장해 나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절~15 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절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생님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른다. 너희들이 제대로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나, 곧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 서로 서로가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처럼 너희들도 행하도록 본보기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요 13:13~15).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그 속죄의 의미, 죄 용서의 의미, 허물을 덮어주는 의미를 제자들도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빛을 진 사람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만이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서 제자들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그 용서로 거룩해진 크리스천들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는 훗날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⁹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¹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7-11).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취지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¹²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¹³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¹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2-14).

두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이웃,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의 표현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서 남의 죄를 정죄할 권한도 없고, 그를 용서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이만 들어 내는 것이지 그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용서하되 생색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나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정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